

정 책 과 제 도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를 줄이자(Ⅱ)*

박진희**

◆ 실천 속의 '괜찮은 일자리'

- 괜찮은 일자리가 매력적인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
 - 첫째, 괜찮은 일자리 아젠다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재원마련의 가능성 여부
 - 경쟁압력이 증가하는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들은 사회보장지출을 줄이고자 할 것이며,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은 그러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고용의 질과 양, 그리고 사회적 비용지출과 기업투자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여 보호적인 규제가 기업의 유연성과 생산성을 침식한다는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임.
 - 괜찮은 일자리는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음.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가 생산성 증가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검토가 요구됨.
 - 둘째, 괜찮은 일자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목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임.
 - ILO의 규약들과 사회정책의 혜택이 주로 공식부문 근로자에게 편향되기 때문에 괜찮은 일자리 아젠다가 보편적인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호장치가 필요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셋째, 일관된 정책아젠다를 수립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이 글은 2001년 8월에 개최된 제89회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에 제출된 사무총장보고서(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Reducing the Decent Work Deficit”를 요약·정리.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parkjh@kli.re.kr).

- 괜찮은 일자리 아젠다는 노동의 기본권리, 사회적 협의와 사회보장, 고용, 기업 등 광범위한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포괄
- 그러나 여전히 광범위한 영역이 어떻게 연관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 물론 고용확대가 사회보장과 사회적 협의를 더 쉽게 강화시키고, 노동의 기본권이 경제안정(economic security)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들과 본질적으로 보완적이다라는 증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파편적인 것임.
- 따라서 이 아젠다를 뒷받침할 지식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관성은 ILO 자신의 전통적인 영역들을 넘어 경제·사회정책들을 주도하는 주요 행위자들 모두와 상호작용해야 함을 의미
- 넷째, 괜찮은 일자리가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실행가능한 목표인지 여부임.
 - 한 국가 내의 정부 정책 및 제도는 근로자의 참가, 이익분배, 그리고 사회적 기반(social floor)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용할 수 있으나 글로벌 경제하에서 나타나는 민간투자자 및 기업들의 결정은 일국의 정책 및 제도들과 상치할 수 있음.
 - 국가간 경제발전단계, 소득, 산업안전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격차의 존재는 글로벌 경제의 정당성을 위협하며,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정책 또는 제도들을 구축하고 이익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따른 제약으로 작용함.
 -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글로벌 구조 - 틀, 방법, 정책, 제도 - 가 필요

◆ 괜찮은 일자리의 경제적 분담금(dividend)

○ 생산적 요소로서의 괜찮은 일자리

-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의 관계는 기업차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연구결과는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생산성을 제고시켜 경제적 분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결론
- 거시 실증분석은 임금수준이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보이며, 다양한 기업수준의 연구들은 이윤공유(profit-sharing), 일자리의 질, 노동자의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정도가 근로자의 직무태도 및 동기, 생산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줌.
- ※ 특히 미국 소매업에서 발전된 경영모델들이 피고용자의 일자리 만족 및 직무몰입도의 개선에 있어서 소비자 만족을 증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모델을 적용한 기업에서 매출액의 실질적 증가를 보였음.

- ILO 연구는 기회균등정책들을 적용한 기업들, 가족친화적인(family-friendly) 작업장에서의 생산성이 높은 경향을 보여줌.
 - ※ 멕시코 치우아우아주에 있는 TRW마길라도라 공장에서, 주(state) 지원 아동보호 프로그램의 실시로 숙련근로자의 확보율이 상당히 개선되었음.
- 생산 요소로서, 괜찮은 근로조건들은 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음. ILO의 소규모기업에서의 노동개선(Work Improvements in Small Enterprises: WISE) 방법은 여러 나라에서 소기업들이 낮은 비용(low-cost)과 무비용 조정(no-cost adjustment)을 통해 더 나은 작업조건들과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음.
 - ※ 몽고 경영자연맹과 ILO 사이의 협력으로 WISE 방법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 생산성 증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생산성은 더 나은 근로조건,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사관계 및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함께 증가함을 발견
- 괜찮은 일자리의 목표들은 기업경쟁력을 성취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지만 경쟁 압력에 직면한 기업은 노동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삭감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음. 그러나 반대로 괜찮은 일자리 목표들은 숙련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개선시켜 작업장을 더 생산적이게 만들어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음.
 - ※ 아디다스는 노동비용을 낮추기보다 제품의 질과 혁신에 근거한 고도의 전략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산업안전과 건강,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1999~2000년에 수행된 pilot 테스트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노동자 참여를 늘리며, 다숙련(multiskill)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이 거의 두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 도출

○ 균형잡힌 목표들

- ILO 아젠다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며 사회적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메커니즘과 제도를 제공
-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자 유연화 전략을 추구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유연화와 고용불안을 동일시 여김.
- 근로자들은 자신의 숙련을 축적하고 인적자본투자를 위해 고용안정을 필요로 하지만 기업들은 생산적이고 숙련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안정적으로 유지가능한 노동시장 구조를 필요로 함.
- 해결책은 구조변화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이해관계와 생산성 및 혁신증대를 주도한 집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임. 괜찮은 일자리의 각 측면과 관련하여 취

해진 제도 및 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핀란드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실업자가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돕는 동안 소득을 보조함. 사회보장에 대한 높은 지출이 노동의 유연성과 구조조정에 치명적이다라는 인식과 달리 경제발전 및 고용회복에 기여하고 있음. 실업은 1994년 18%에서 2001년 초 9.2%로 하락
- ※ 덴마크의 경우, 실업 그리고 특히 장기실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그것은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등 일자리 찾기 및 고용재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들이 시행되었기 때문
- ※ 네덜란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임금자제, 유연한 고용형태들 그리고 사회급부의 확대를 포함하는 타협을 이루었으며, 포괄적인 노동시장정책으로 고용시장의 개선과 함께 글로벌 경제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촉진

○ 성장분담금

- 근로조건 개선, 즉 근로자 참여, 사회적 협의, 사회보장 및 안정, 남녀불평등의 축소 그리고 작업장 및 사회에서의 민주적 자유의 향유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숙련개발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협의는 보다 예측가능한 노동시장조건들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노동시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음.
- ※ 남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ILO 연구는 신흥산업부문들과 직업들이 요구하는 숙련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업훈련과정을 적응시키는데 있어 사회적 협의가 얼마나 효율적인 수단인지를 보여줌. 그것은 또한 노사관계의 갈등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줌. 이 모든 것은 투자와 성장에 우호적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 안정을 증대시킴.
-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건들은 외국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적 이점을 제공. 이러한 외국투자가 투자, 성장, (직·간접적인) 고용 및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
- ※ 싱가포르 정부는 산업정책, 타깃인센티브 그리고 인적자원개발 등을 하나의 일괄프로그램으로 결합시켜 투자자에게 지역적 이점을 제공. 이러한 배경에는 노조대표자 그리고 강력한 삼자간 사회적 협의 전통이 있음. 이러한 제도는 정부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안정정도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됨.
- ※ 코스타리카 정부는 기존의 사회정책과 함께 포괄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포함하는 산업발전 일괄프로그램을 구성. 이것을 바탕으로 인텔의 투자를 유치하여 3천 5백개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에 파생된 간접적인 고용

창출도 상당한 수준이었음.

- ※ 아일랜드에서는 노사정 삼자간의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외국직접투자를 유치하였음. 또한 외국소유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 다국적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제조업 고용의 50%에 달함.
- 거시경제 수준에서 남녀평등과 경제성장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밝힌 연구가 있음.
- ※ 1960년 교육에서의 남녀 평등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1960~92년 사이 1인당 경제성장에 이어 매년 1인당 0.9%씩 증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남녀불평등은 동아시아와 비교할 때 약 0.3%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음. 따라서 남녀평등은 남아시아에서 1인당 50% 이상, 사하라 이남에서는 100% 이상 성장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였음.
- 민주적 자유의 창달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며 정책결정이 분권화된 체제에서 경제성과는 급격한 등락을 보이지 않음.

◆ 보편적 목표로서의 괜찮은 일자리

- 괜찮은 일자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발전목표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
 - 아마르티야 센(Amartya Sen)은 1999년 국제노동회의에서 발전목표는 사람들의 능력을 확대시켜 그들의 자유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빈곤은 이 능력과 자유의 박탈로 간주
 - 마르타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성(gender)의 입장에서 인간능력들을 바라봄으로써 이 논의를 더욱 발전시켰음.
 - 권리와 경제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괜찮은 일자리 아젠다의 정신, ILO의 기본 주장
- 저소득 국가들에서조차 괜찮은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
 - 괜찮은 일자리와 1인당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 사이의 관계를 검토했던 ILO 연구는 괜찮은 일자리의 진전이 실제로 경제적 진보와 병행한다는 것을 밝혔음. 그러나 소득수준별로 국가들이 도달한 괜찮은 일자리의 지표들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
- 빈곤계층 또한 권리를 갖고 있음. 따라서 기본원칙들과 권리를 존중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권리, 고용, 보호 및 협의를 하나의 일괄적인 발전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때 모든 부문에서의 진보가 가능

- 방글라데시에서는 정부, 의류제조업자 및 수출연합(BGMEA), NGOs, 유니세프 그리고 ILO간의 협력으로 아동들과 그 가족들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그 문제의 상이한 면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시행
 - ※ 아동들은 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았으며, 그로 인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장학금을 제공
 - ※ 가족들을 위해서는 숙련 및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훈련 및 가계대출 등의 프로그램이 실행
 - ※ 동시에 효율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 그로 인해 아동노동을 이용하는 공장들의 수가 1995년 43%에서 2000년 6월 약 5% 가량으로 감소
- 세계적으로 2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노예(debt bondage)는 아동 특히 여아들과 관련됨. 이들이 채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돈을 제공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음. 오히려 발전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인 원인들을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임.
- ILO는 다른 UN조직들과 협력하여 남아시아의 채무노예를 제거하기 위한 국가정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 그것은 채무노예가 만연한 지역에서 소규모 금융, 소득발생 활동들, 건강조치들, 교육, 의식향상 및 사회적 협의를 결합시킨 예방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것임.

○ 조직화, 안전, 그리고 사회보장이 결여되어 있는 비공식 경제에서도 공식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을 이용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이끄는 것이 가능

- 중앙아메리카에서의 ILO의 PROMICRO 프로그램은 비공식 경제에서 괜찮은 경제적 기회들을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micro 기업가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 ※ 엘살바도르의 소수의 기능직 근로자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조직을 설립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위원회(CONAMIS)를 창립. 이것은 일군의 소규모 자영업주(주로 여성들인 미용실 운영자들)의 조직화를 이루어냈으며, 그들의 활동으로 시장 점유율과 소득이 증가하였음. 또한 자신들의 노동관련 활동들로서의 새로운 기반의 존엄성과 자아-존중이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존중과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큰 성과였음. 그들은 이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자신들의 아젠다로 설정했음.
-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ILO는 전형적인 공식보호체계 외부에 있는 가내영세 수공업(home-based) 근로자들(주로 여성들)의 안전, 건강 및 작업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성공적인 시험프로그램을 지원했음.

- 비공식 경제에서의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을 위한 많은 이니셔티브들이 여성들의 조직화에 근거하고 있음.
 - ※ PROFEMU(도시지역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 1998년 다카르(Dakar)에서 시작된 Wer Werle의 소규모 보험계획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ILO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건강(healthcare)에 대한 요구들을 분명히 하였으며, benefit 프로그램에서 승인되도록 지원. Wer Werle는 또한 HIV/AIDS의 예방을 포함한 건강관련 캠페인들을 조직하였음. 이것은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소규모 보험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보건부의 대화상대자(interlocuter)이며, 국가정책 수준에서 여성들의 건강문제들을 대변
 - ※ 인도에서 여성자영자연합(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 SEWA)은 30만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로서 통합된 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음.
- 비공식부문을 취약하게 만드는 금융제도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소규모 용자가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체계들은 고용창출, 안전촉진지원, 자격취득(empowerment) 고무, 그리고 조직화를 통한 의사표현과 같은 괜찮은 일자리의 여러 차원들을 결합하게 함.
-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에 대한 소규모 금융제도들과 같은 사회사업(social entrepreneurship) 이니셔티브들은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작동시키는데 있어 핵심요소임.
 - ※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의 예를 보면, 가난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Grameen 은행은 신기술을 이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업을 돕는 가교역할을 하며, 이미 교육, 건강과 같은 다른 사회적 목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 대출자는 2백 3십만명 정도이며, 그 중 94%가 여성, 1% 이상으로 GDP에 대해 기여
- 이러한 금융거래는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연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함.
 - ※ 러시아에서 ILO는 중소기업들이 비공식 금융재원에서 공식금융재원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금융제도가 리스크-회피(risk-averse) 은행들과 중소기업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신용보증체계를 수립하도록 도와 왔음. 또한 국가차원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소규모금융제도를 이용하여 소매상들에게 용자할 수 있는 대규모 기금(wholesale funds)을 마련하도록 지원

◆ 통합적 정책 틀로서의 괜찮은 일자리

- 지역, 국가 혹은 글로벌 어느 수준에서건 사회적·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체계적으로 통합된 접근을 요구하는 이유가 존재
 - 첫째, 괜찮은 일자리의 여러 측면들은 모두 사회적 참여, 빈곤 근절 및 개인적 성취와 같은 광범위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함.
 - 노동은 사회적 참여에 기여하지만, 그것은 차별이나 억압 없이 사람들의 의견이 청취되는 환경하에서 수행될 때에만 가능함.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이지만 권리와 대표권(representation)없이 불가능함.
 - 둘째, 괜찮은 일자리의 상이한 측면들은 서로를 강화하는 특성을 가짐.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결사자유권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열망들을 표현하여 그것들을 집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모든 다른 사회적 목표들에 기여할 수 있게 함.
 - 셋째, 통합적인 괜찮은 일자리 전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
- 통합적 접근에서의 거시경제정책
 - 거시경제정책은 다양한 방식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촉진할 수 있음. 이는 성장과 고용과의 관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며, 경제불안이나 인플레이션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정책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고용창출은 투자수준의 증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정책들은 단기적 안정화와 성장 및 구조변화라는 장기적 목표들 사이의 균형에 우선권을 둬. 거시경제 균형이 지속적인 성장의 전제조건이라는 데 일반적으로 동의하나 투자 및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장기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의 안정화 수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 더구나 국내 및 외국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들은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에도 의존
 - 괜찮은 일자리 목표는 기업발전, 임금 및 소득정책, 소득 및 고용안정정책들의 구축, 인적자본 및 노동시장제도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공공근로 프로그램들과 같은 고용창출 프로그램의 역할 등 거시경제 정책입안과정에서 광범위한 쟁점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임.
 - 사회적 협의는 거시경제정책들이 이러한 광범위한 목표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최근 아일랜드 경제는 삼자간 협의에 따른 일련의 경제적·사회적 합의들에 근거한 강력한 사회적 협력을 통해 제도개혁 그리고 저소득, 중소득자들에 맞춘 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적정임금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했으며, 경제통합과 함께 이러한 우호적인 정책들의 시행으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의 하나로 변화시켰음.

- 통합적 정책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ILO 프로그램들
- 국가수준에서의 관찮은 일자리 아젠다의 실천적 적용은 국가상황들과 우선사항들이 무엇인가에 의존
 - 저소득 국가들에서 주요 관심들은 특히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있어 조직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다른 기본권리들, 고용 및 사회보장 그리고 빈곤 퇴치 등임.
 - 중소득 국가들은 노조권리, 사회적 협의, 고용창출 및 경제적 목표들 사이의 연계가 우선시될 것임.
 - 고소득 국가들의 수준에서 종종 사회적 배제, 고용의 질 그리고 보호라는 지속적인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임.
 - 작업장에서의 안전, 노동자들과 고용주들의 조직화, 남녀평등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관심사항들임.
 - ※ 이를 추구하기 위한 시험프로그램이 덴마크, 가나, 파나마 그리고 필리핀 등 소수의 국가들에서 시작되고 있음.
 - 체득한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가적인 삼자 파트너들의 협력과 기술협력 제공자들의 도움을 받아 관찮은 일자리에 대한 국가별 평가를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지침을 제공하는 정책평가서를 작성하여 관찮은 일자리 목표들을 구조화할 수 있음.
 - 관찮은 일자리를 촉진하는 통합적 접근은 여성들과 그들이 직면하는 불평등이 특별히 중요. 여러 대륙들과 국가들에서의 실천적 경험들에 대한 검토는 빈곤 및 남녀불평등 축소, 즉 고용촉진 및 생산성 개선, 입법을 통한 개입 그리고 문맹률 퇴치 캠페인과 더불어 공식장벽들의 제거, 조직화를 통한 자격부여,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보장 제공이라는 네 수준에서 행동한 결과임을 보여준 것임.
 - ILO는 성, 빈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능력형성 프로그램과 정책결론들을 통합하였으며, 이를 위해 아랍여성의 직업훈련과 연구를 위한 센터(Center of Arab Women for Training and Research: CAWTAR)를 개설하여 이러한 접근방법들을 모색
 - 지역에 기반한 접근법들

- ※ 유럽에서 ILO의 아젠다를 적절히 응용한 통합 모델, 즉 공기업체들(social enterprises)과 지역경제발전기구(Local Economic Development Agencies: LEDAs)가 시행되었음.
- ※ ILO와 다른 국제기구는 지역발전의 공공부문 대표들, 고용주 및 노동자 대표들, 농민조직들, 조합들 그리고 다른 NGOs와 같은 이해당사자 모두와 함께 중앙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LEDAs의 발전을 지원하는 일을 해왔음. LEDAs는 주로 남녀평등 문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업체와 사업체의 발전을 지원
- ※ 고용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아메리카의 LEDAs는 1994년과 1998년 사이 2만 5천개 이상의 상용직, 1만 6천개의 임시직을 창출했으며 7천개 이상의 신규 사업장에 금융지원
- 통합적 접근은 또한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 ※ 리우 데 자네이루 고용창출, “시장-형성”(market-making)을 통한 기업활동(entrepreneurship)지원, 숙련도 향상, 소득안정개선정책들을 포함한 저소득 영역들에서 통합적 프로그램들이 참여의 확대와 사회적 협의에 근거하여 디자인하고 실행하는데 이용
- 이러한 접근방법의 결과는 지역수준에서 통합적 접근법이 괜찮은 일자리 아젠다의 모든 차원들에서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다양한 위기적 상황에서 - 갈등, 자연재해, 경제위기 혹은 정치적 이행 어느 것이든 -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리촉진, 생활 그리고 사회보장을 포괄하는 통합적이며 다분야적 방식으로 괜찮은 일자리 접근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함.
-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이었음. 예를 들면 직업훈련을 이용하여 고용능력을 개선하고 청년, 여성 그리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그룹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노력들의 중요성은 동티모르, 모잠비크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 글로벌 수준에서의 새로운 제도발전

- 최근의 제도적 발전 중에서 노동에서의 기본원칙들과 권리들에 대한 ILO 선언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 선언은 억압적이지 않으며, 국가 및 국제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국가들과 글로벌 경제에서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 남아프리카 발전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메리카 공동시장(Mercosur), 그리고 카리브공동체(CARICOM)는 지역통합의 맥락에서 선언에 포함된 노동의 기본원칙들과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있음. 이 원칙들과 권리들은 그들의 사회현장이나 비강제적인 사회원칙들에 대한 선언에서 구체화되고 있음. 그러므로 노동에서의 이 기본원칙들과 권리들의 실현은 사회적 협의의 주제이며 다른 촉진수단들을 통해 진행된다. 일례로, CARICOM의 경우에 지침서들은 노동법을 초안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 기업의 사회정책에 대한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MNE 선언)과 OECD 다국적기업 지침서는 또한 기업활동 내에서 사회적 가치들을 촉진. OECD 다국적 기업지침서는 다각적인 전망을 갖고 있으며, 정부가 채택하는 것이지만, ILO MNE 선언은 정부, 고용자단체와 노동조직 모두 채택한 보편적이며 사회협약임.

○ 사회적 협의의 새로운 수단들

－ 유럽근로자평의회(European Works Councils)는 적어도 두개의 EU 구성국가들에서 150명이 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 596개 사업체의 경우 정보 및 상담 소송절차의 수립을 1994년 규약화하였음.

－ 국제적 수준에서도 협의를 위한 수단 마련

- 지난 해 선박산업에서 국제수송노동자연맹(ITF)과 주요 선주조직들의 하나인 국제해상고용자위원회(IMEC) 사이에 임금, 노동의 최소기준, 그리고 모성보호와 같은 다른 근로조건들을 포괄하는 혁신적인 국제적 단체협상이 이루어졌음.
- 운송분야에서의 산업구조조정으로 항공사 제휴(Star, One World 등)의 출현과 주요 항공사간에 단체급식 및 공항(ground handling) 공동서비스의 결과를 초래
- MNEs와 국제무역사무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적 혹은 지역적 틀의 협의들이 점점 증가

※ 스타토일(Statoil)과 국제화학, 에너지, 광산 및 일반직 노동자연맹(ICEM), IKEA와 국제건설 및 벌목노동자연맹(IFBWW), Telefonica와 국제네트워크 노동조(UNI)

○ 법률에 의해 강요되지 않지만 법률에 의해 규제된 행위를 강화하거나 보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민간 이니셔티브(VPIs)가 등장. 몇몇 이니셔티브는 여러 수준에서의 사회적 협의 및 상담과 같은 이미 ILO의 원칙들, 특히 노동의 기본원칙들과 권리들에 대한 ILO 선언이 반영된 프로그램에 의존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투자(SRI)는 사회적·윤리적·환경적 요인들을 투자결정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재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와 가치들을 결합시킴.
 -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SRI기금들은 많은 다른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SRI는 기관투자(금융제도들과 연기금) 총액의 13%를 구성. 미국에서 사회적으로 심사를 통과한 뮤추얼펀드의 전체 숫자는 1995년 55개에서 1999년 195개로 증대.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줌.
 - 주주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은 또 하나의 세력. 노조가 통제하는 SRI 연기금에 대한 최근의 ILO 연구는 350여개 총 780억 유로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미국에서 가장 큰 기금인 캘리포니아 공공노동자 퇴직제도(CalPERS)는 SRI를 움직이는 세력
 - 그러나 SRI 현상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ILO의 가치들과 원칙들을 반영하는 정도는 가변적이며, 노동실천에 대한 그 효과는 확정적이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산의 38%는 기본권에서부터 작업조건들과 임금에 이르는 노동관련 쟁점들에 따라 심사받고 있음.
- 이상의 모든 제도적 발전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ILO의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 이의 현실화는 세계화의 행로, 세계화의 지배구조 그리고 성장과 분배에 대한 효과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정책들에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
- ILO는 괜찮은 일자리 감소를 해결하고자 정부, 노동자 및 고용주 조직들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지속할 것임.